

濟州 缸波頭里 抗蒙遺蹟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內城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한 성 옥 (민족문화유산연구원)

1. 머리말

제주 사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대몽항쟁은 원종 12년(1271) 金通精이 삼별초를 이끌고 入島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륙과의 거리로 인해 진도에서의 항쟁보다는 기세가 약화되어 원종 14년 麗元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제주에서 전개된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고 깊다.¹⁾ 즉,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그동안 독립적인 정치조직을 갖고 있던 제주의 역사를 육지에 예속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江華에서 40여년간 전개되었던 대몽항쟁은 元의 회유정책으로 마무리되고 開京으로 還都가 결정되자 삼별초는 이에 반대하며 강화와 진도에 이어 제주에 들어와 항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는 원종 11년(1270) 10월 李文京을 제주로 보내 진도가 함락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항몽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원종 12년 5월 삼별초는 여몽연합군에 밀려 제주에 들어와 투쟁을 지속하였다. 몽고 역시 삼별초의 입도 이전부터 南宋과 日本의 중간에 위치한 제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나라의 원활한 지배와 정벌을 위해서도 삼별초 제압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또한, 고려와 일본 등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삼별초를 진압한 후 탐라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를 설치하여 100여년 동안 제주를 직접 경영하였다.

제주의 대표적 항몽유적인 항파두리 항몽유적(항파두리성;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상귀리 일대, 사적 제396호)은 해발 150~200m에 위치하며 성의 좌우에는 古城川과 昭王川이 흐르고 있다. 천연적인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정형성은 없으며, 규모는 둘레 6,000m, 남동-북서 직경 1,450m, 남서-북동 직경 660m이다. 면적은 1,135,476㎡(343,481평)이며 중앙부는 해발 150~165m의 평탄한 대지로 내성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성은 토축으로 쌓았으며 내성은 석축으로 축성하였다. 성 중앙에 위치한 내성지는 3,000여평으로 ‘대궐터’라고 하며 삼별초의 지휘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실시된 항파두리성 내성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청자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 삼별초의 성격과 문화, 일상생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① 고창석 「삼별초와 제주도」 『제주도지』 제주도, 1993.
- ② 국립제주박물관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6.
- ③ 김동진 「삼별초의 마지막 저항지 제주 항파두리」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시.
- ④ 윤용혁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 일지사, 1991.
- ⑤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2.
- ⑥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문화재 시굴조사(2차) 보고서』 2013.
- ⑦ 제주문화예술회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2002.
- ⑧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제주 회천동 유적』 2012.
- ⑨ 제주시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현황」 2014.

2. 향파두리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

향파두리성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1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무구류의 경우 갑옷을 비롯하여 鐵矛와 철촉, 청동촉 등이 확인되며, 와전류는 高內村·仁 등의 명문와와 연판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수지문 계통의 평기와, 토전 등이 확인되고 있다. 철기류는 솥(鼎)과 못 등 다양하며, 청동제는 숟가락, 그릇 받침 등이 확인되고 있다. 자기류는 고려청자와 중국자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고려청자는 완과 접시 등 일상 생활용기를 중심으로 병과 호, 베개, 의자 등이 확인되고 있어 향파두리 유적의 성격 규명과 일상생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²⁾ 향파두리성 내성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기종별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향파두리성 내성지 위치와 전경

1) 碗³⁾

접시와 함께 가장 널리 쓰인 일상 생활용기로 접시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다. 크게 내저원각과 내저곡면 대접으로 나누어지는데, 내저원각의 경우 다양한 크기가 있으나 14세기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굽 너비와 유사한 매우 넓은 크기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내성지 출토 청자의 하한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양은 무문은 확인되지 않으며 도법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과 상감 기법이 있는데, 압출양각은 접시에 비해 소량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압출양각은 시문 기법의 특징으로 인해 내저곡면에서만 확인되며 국화문과 초화문 2유형만 있는데 유층도 맑지 못해 고품격 청자에는 미치지 못한다. 상감은 운학문 1점(3호 중정)을 제외하면 모두 국화문과 여지문이 차지하고 있어 매우 특징적이다. 운학문도 외측면에 국화문이 시문되고 있어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燔法은 압출양각과 상감 기법 모두 규석과 굵은 내화토 가루, 모래 받침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규석 받침의 경우 匣燔하였으며, 굵은 내화토 가루와 모래 받침은 單獨 燔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포개구이는 2점(3호 건물지·1호 중정)이 확인되는데 굽바닥

2)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3.

3) 완은 발과 대접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완으로 정리하였다.

에 굵은 내화토를 받친 후 내저면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따라서 일부 단독 번조의 경우 내저면에 잡티가 묻어 있는 사례들이 있으나 대부분 갑번과 단독 번조로 세심하게 생산된 접시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품격의 양질청자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접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여지국화문완

인중 장릉(1255년 수축) 출토 여지모란문완

2) 標匙

내성지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기종도 화형과 구연 사선형, 구연 외반형, 팔각 등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문양은 무문도 일부 있으나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과 상감 기법이 중심을 이루며 퇴화 기법이 1점(2호 중정) 확인되고 있다. 압출양각 기법으로 시문된 문양은 국화문과 초화문이 확인되는데 대체로 문양이 선명하지 않다. 상감 기법은 국화문만 확인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일부 팔각접시의 경우 내부는 압출양각, 외측면은 상감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는데, 내성지에서 확인되는 다른 그릇들의 문양과 동일한 양상이다.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화형접시



진도 용장성 청자 출토 상태

번법은 완과 비슷한 양상으로 압출양각과 상감 기법 모두 규석과 굵은 내화토 가루, 모래 받침이 확인되고 있다. 규석 받침의 경우 匣燔하였으며, 굵은 내화토 가루와 모래 받침은 單獨 燔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포개구이는 굽바닥에 굵은 내화토를 받친 후 내저면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한 사례가 2-2호 중정에서 1점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부 단독 번조의 경우 내저면에 잡티가 묻어 있는 사례들이 있으나 대부분 갑번과 단독 번조로 세심하게 생산된 접시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품격의 양질청자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청자접시를 사용하여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압출양각접시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양각상감국화문접시

3) 盞

잔은 3호 중정에서 양각죽절문이 시문된 1점이 확인될 뿐이다. 탁잔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으나 일상생활 용기인 잔의 수량이 매우 희소하여 특징적이다. 잔은 생활유적에서 완·접시와 함께 가장 많이 출토되는 기종인데, 출토 수량이 적은 것은 잔의 기능을 완을 비롯한 다른 그릇이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각죽절문 잔도 매우 양질의 고품격 청자로 일상생활 용기보다는 의례용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상생활 용기인 잔의 부재는 항파두리 청자의 다양성이 제약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청자양각죽절문잔



청자양각죽절문주자와 승반(국립중앙박물관)



청자양각죽절문병
(국보 제169호 호암미술관)

4) 托盞

화형으로 만든 잔과 받침이 조합을 이루는 고급 기종으로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 2호 중정, 2-2호 중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2호 건물지는 탁잔의 수량도 많으며, 상감 문양과 음각 초화문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향후 건물의 성격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양은 잔받침의 경우 굽 부분에 일부 음각 초화문이 확인되고 있으나 90° 외반되는 전 부분의 중심 문양은 모두 상감 국화문으로 시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은 문양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잔받침과 조합을 이루는 기종의 특성으로 보아 향후 국화문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즉, 탁잔은 상감 국화문을 중심 문양으로 시문한 화형 탁잔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번법은 잔의 경우 내화토 가루를 받쳐 單獨 燒造하였으며, 잔받침은 굽 내측에 규석 받침을 받쳐 匣燒으로 생산하였다. 탁잔은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의 성격을 갖는 고품격 기종으로 유색과 태토, 문양 등이 완과 접시에 비해 매우 단정하며 균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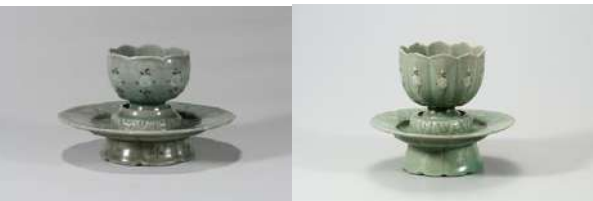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 잔과 잔받침



제주 화북동 출토 잔받침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 잔과 잔받침



청자상감국화문잔탁(국립중앙박물관)

5) 筒形盞

통형잔은 뚜껑과 잔, 받침이 조합을 이루는 기종으로 3호 중정에서 잔이 출토되었으며, 3호 건물지와 5-1호 건물지에서 뚜껑이 출토되었다. 잔받침은 특별한 기종이 아닌 일반 접시를 사용하고 있어 동반 출토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는데, 내성지에서 뚜렷한 잔받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형잔은 상감 국화문을 시문하였으며, 번법은 저부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뚜껑은

2점 모두 상면 중앙에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성형하였다. 3호 건물지 출토 뚜껑은 음각 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 모래를 받쳐 단독 번조하였다. 또한, 불완전 번조로 완전히 용융되지 않았으며 기포와 잡물이 많은 조질품이다. 5-1호 건물지 출토 뚜껑은 상감 당초문과 번개문을 시문하였다. 일부만 남아 정확한 번법은 알 수 없으나 내면의 잔존 상태와 유약, 태토, 문양 등으로 보아 규석을 받쳐 갑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상감통형잔과 뚜껑

통형잔(국립중앙박물관)

6) 馬上杯

굽 부분이 첨저형을 이루는 기종으로 5호 건물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저부의 상감 줄무늬와 연판문만 확인될 뿐 중심 문양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번법은 내면에 규석을 받쳐 갑번하였다. 마상배는 고족배가 등장하면서 14세기 후반이 되면 소멸되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⁴⁾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상감마상배

마상배(국립중앙박물관)

7) 盒

합은 뚜껑과 1조를 이루는 기종으로 2호 건물지에서 뚜껑은 없고 몸통부 2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모두 구연 아래에 상감 기법의 번개 무늬를 시문하였으며, 구연부에 내화토 가루를 받쳐 뚜껑과 함께 번조하였다. 크기가 낮은 합은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갑번하였으며, 크기가 높은 합은 저부가 결실되어 번법을 알 수 없다.

4) 한성옥 「고려 후기 청자의 생산과 유통」 『고려도자신론』 학연문화사, 2009.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상감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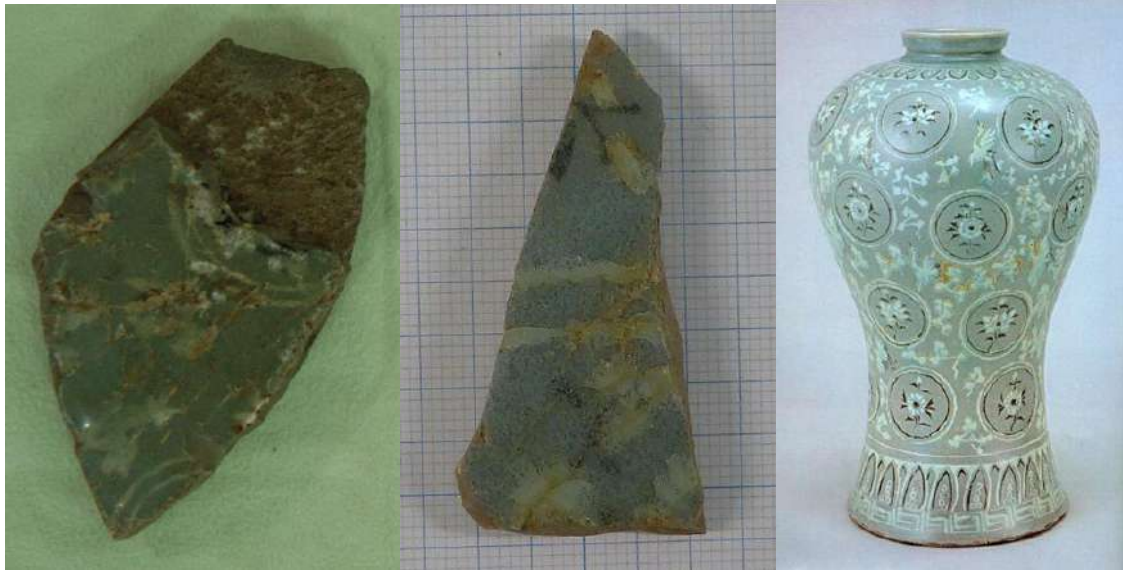
청자상감합(국립중앙박물관)

8) 瓶

운반 또는 저장 용기로 사용되는 병은 장경병과 표형병, 매병 등이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 5-1호 건물지, 6호 건물지, 2호 중정, 3호 중정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상감 모란운학문(국화모란운학문)과 음각 연화문은 매병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문양은 무문(3호 중정)과 음각 연화문 1점(2호 건물지)을 제외하고 모두 상감기법으로 시문하였다. 상감 문양은 국화문과 운학문, 모란운학문 등이 있으며, 종속문 가운데 14세기에 주로 시문되고 있는 연주문도 확인되고 있다. 음각연화문병은 13세기 고품격 양질 청자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 문양으로 주자와 호 등에도 시문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병에 시문되고 있어 내성지 출토품도 매병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감 모란운학문 또는 국화모란운학문이 시문된 병 역시 매병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비슷한 조형을 갖춘 매병은 중국 史天澤墓(1275년) 출토 청자상감모란운학문매병과 호암미술관 소장의 청자상감국화모란운학문매병(보물 제558호)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국화문이 시문된 표형병도 특징적 기형으로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항파두리 유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무문의 병은 다른 병들이 음각 또는 상감 기법의 고품격 청자인 것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아 병도 완과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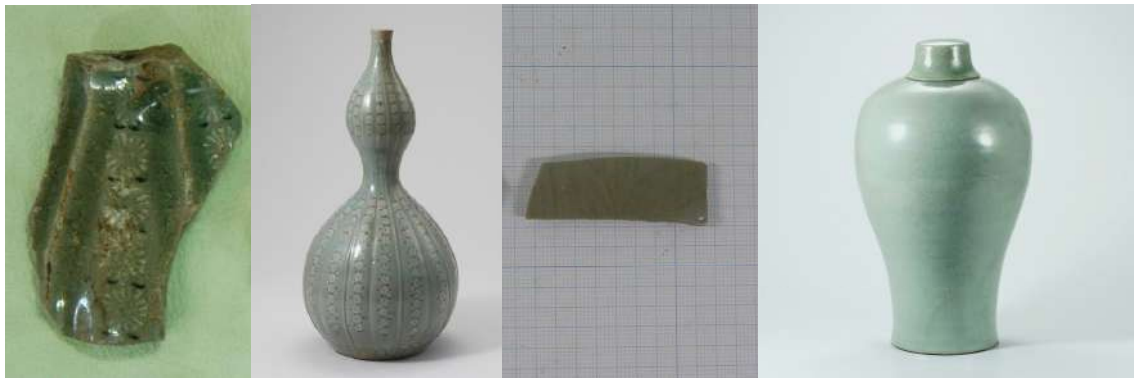
시처럼 다양한 청자가 유입되어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법은 동부 파편만 확인되어 알 수 없다.

병은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위세품으로 무문의 1점을 제외하고 모두 규모도 크고 문양과 기형도 충분한 품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매병으로 추정되는 음각 연화문병과 상감 모란운학문(국화모란운학문)병은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향파두리에서 가장 양질의 청자로 그 쓰임새도 특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파두리 출토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청자상감국화모란운학문매병
(호암미술관 보물 제558호)



향파두리 국화문병 청자상감국화문표형병 향파두리 연화문병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상감연화문매병
(국보 제254호 개인 소장)

9) 壺

호는 소형과 대형이 각각 1점 출토되었다. 2-3호 중정 방형단에서 출토된 소형호는 구연이 내만되어 ‘凹’자형을 이루고 있어 뚜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은 상감 국화문을 시문하였으며, 변법은 저부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2호 중정에서 출토된 대형

호는 구연이 곧추선 후 외반된 기형으로 문양은 동체가 결실되어 어깨부분의 상감 여의 두 무늬만 확인되고 있다. 번법은 저부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청자상감국화문호

청자상감국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10) 注子

주자는 물과 술 등 액체를 따를 때 쓰는 도구로 2호 중정에서 注口 부분만 1점 출토되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11) 器臺

기대는 화분 등의 그릇을 올려 놓는 장식용(정엄용) 그릇 받침으로 고려시대 대표적 위세품이다. 2호 건물지와 2호 중정에서 1점, 2-1호 중정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건물지와 2호 중정에서 출토된 기대는 밖으로 외반된 양각의 다리와 투각으로 시문된 당초문의 측면을 갖추고 있다. 2-1호 중정에서 출토된 기대는 투각과 상감으로 시문한 측면 일부가 확인되었다. 번법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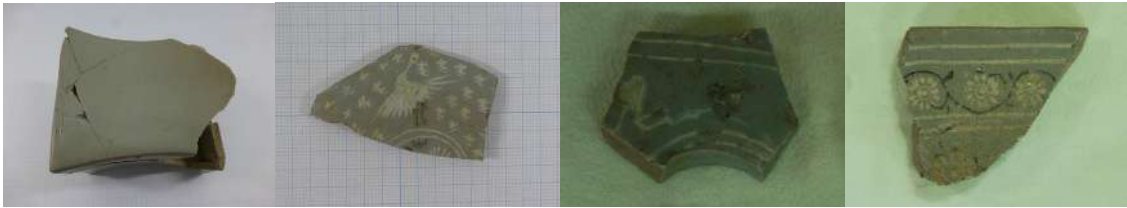


항파두리 내성지 출토 청자투각기대

청자투각기대(국립중앙박물관)

12) 배개(枕)

청자 배개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으나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고품격의 물품이다. 내성지에서는 2호 중정에서 무문의 거의 완벽한 배개가 1점 출토되었으며, 2호 건물지에서 유약과 태토 등이 매우 좋은 양질의 상감 운학문 배개(추정) 1점이 출토되었다. 2점 모두 정확한 번법은 알 수 없으나 유약과 태토 등으로 보아 규석을 받쳐 굽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 베개

항파두리성 출토 청자 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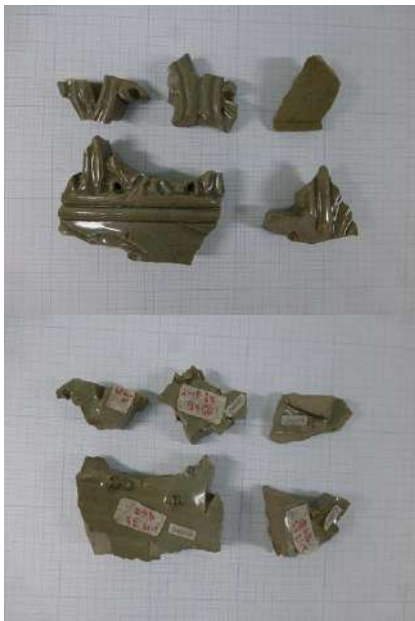


청자상감모란문베개(국립중앙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베개(신안선, 국립중앙박물관)

13) 倚子(墩)

의자 또는 의자에 착석한 후 팔걸이로 사용하는 대형 청자로 제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량이 한정된 고려시대 핵심 위세품이라 할 수 있다. 1호 중정과 2-1호 중정, 2-3호 중정 등에서 확인되는데 파편의 수량이 많지 않아 1개체로 추정된다. 문양은 의자의 일반적 시문 기법인 투각으로 당초문을 새기고 있다. 번법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대형의 무게로 인해 내화토 가루를 받쳐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투각의자



청자투각의자(국립중앙박물관)

3. 향파두리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향파두리에 대한 학술조사 결과 다양한 기와와 고려청자, 중국도자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청자는 12~14세기 청자가 확인되는데, 13세기 상감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종은 완과 접시 등 일상 생활용기 이외에 병과 호, 베개, 의자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제주의 다른 유적에서는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은 기물들로 향파두리성의 위상과 품격을 짐작할 수 있다.

1) 기종과 번법

향파두리 내성지에서는 일상 생활용기인 완과 접시를 중심으로 잔과 받침이 조합을 托盞, 잔과 받침, 뚜껑이 조합이 이루는 통형잔, 마상배, 합, 병, 호, 주자, 기대(그릇 받침), 베개, 의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가운데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적 성격을 갖는 청자는 托盞, 병, 기대, 베개, 의자 등이 있는데 탁잔을 제외하면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화 도성과 진도 용장성에 비해 기종과 문양 구성이 단순하며 고품격과 위세품의 성격을 갖는 기종들의 수량도 많지 않아 삼별초의 경제력이 어려웠음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장기간의 대몽항쟁과 이로 인한 청자 제작의 어려움, 잦은 이동으로 고품격 청자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 실생활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일상생활 용기 가운데 하나인 잔의 수량이 매우 희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잔의 부재는 이를 완 등 다른 그릇으로 대체할 정도로 다양성에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이며 단조로운 기종과 문양이 중심을 이루지만 강화와 진도, 남해 등 대몽항쟁의 핵심 유적에서 출토되는 위세품적 성격을 갖는 병과 의자, 베개, 기대 등이 확인되고 있어 향파두리성의 위상이 제주에서는 으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몽항쟁 이후에도 양질 청자가 많지 않아 향파두리성의 정치적 위상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질의 중국 백자와 청자가 상당 수량 출토되고 있어 향후 중국 자기의 유입 시기와 성격을 정리하여 고려청자와의 비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번법은 규석 받침과 굵은 내화토 가루, 모래 받침이 확인되는데, 굵은 내화토 가루와 모래 받침은 유약과 태토, 문양 등의 성격이 유사하여 같은 유형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규석 받침은 기본적으로 갑변을 하였으며 대부분 유층이 맑고 균일하며 성형이 단정하여 양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굵은 내화토 가루와 모래 받침을 받쳐 단독 또는 포개 번조한 청자는 일부 양질도 있으나 대부분 유층이 탁한 황색조를 띠고 번조상태도 좋지 않으며, 그릇 표면에 기포와 잡물이 많아 품질이 떨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질 청자와 이보다 떨어지는 거친 제품이 함께 확인되는 사례는 강진의 청자 가마터뿐만 아니라⁵⁾ 유통과정에서 침몰한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수 청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⁶⁾ 즉, 신분과 용도 등에 따라 이원화된 제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진에서 생산한 양질 청자뿐만 아니라 강진 이외의 지역에서 만든 청자들이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향파두리 세력이 진도의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집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자의 지역적 양상을 알려주는 사례는 최근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울주 지역 대몽항쟁 유적으로 알려진 연자도 유

5)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07.

적이 있는데,⁷⁾ 향후 이를 포함하여 남해 분사도감 등 경상도 지역 대몽항쟁 유적 출토 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항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청자 받침 유형

2) 시문기법과 문양

문양은 실용성을 갖는 자기의 예술성을 높여주고 미술품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이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되면 수요자의 기호에 맞추어 일정한 양식이 등장하며 규격화되는데, 수요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권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견본품을 제시하거나 화원을 보내 이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문양은 예술성뿐만 아니라 장식성과 정서적, 사회적(권력=권위의 상징, 종교=위엄의 상징), 주술성(문양의 내재적 의미) 등을 상징하는 역할도 담당하며 다종다양한 소재로 그려졌다. 한편, 시문 기법은 그릇에 면과 선을 새겨 표현하는 刻技法과 그릇 표면에 붓 등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畵技法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기법이 화기법보다 상대적으로 고급의 양질 청자로 평가받고 있다.

항파두리 내성지에서는 무문과 화기법의 堆花文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각기법에 속하는 압출양각과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다.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은 문양과 크기 등 장식의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양질 청자를 대량 생산하는데 널리 사용하는 기법으로 전성기 청자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⁸⁾ 그러나 항파두리 내성지에서 출토되는 압출양각 기법은 일부 양질 청자도 있으나 대부분 문양이 선명하지 않고 변법도 굵은 내화토나 모래를 받쳐 단독 번조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유층이 맑고 문양이 선명하며 규격을 받쳐 갑번으로 번조하는 양질 청자와는 구별되고 있다. 문양도 국화문과 초화문이 대부분으로 매우 단순하게 확인되고 있어 고품격 양질 청자와는 차이가 있다.

상감 기법은 고품격을 상징하는 운학문은 대접 1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에서 확인되어 문양과 기종이 조화를 이루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위세품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운학문에 모란 또는 국화를 시문한 상감문 역시 매병으로 추정되는 병에서 확인되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 국화문과 여지문이 확인

7)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2012.

8)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6~102쪽.

되는데, 국화문은 완과 접시 등 모든 기종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며, 여지문은 대접에서 국화문과 함께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국화문과⁹⁾ 여지문이¹⁰⁾ 이 시기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 반복이 가능한 문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내성지 출토품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향후 항파두리에서 특정한 문양을 선호하였을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기본적으로 항파두리 시기를 포함한 이후 시기는 장기간의 대몽항쟁으로 전문화 분업화되었던 청자 생산체제가 와해되어 점차 기술이 쇠퇴하던 때이다. 따라서 치밀하고 복잡한 고급 청자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양을 시문하여 대량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압출양각 청자 역시 이전 시기처럼 고급청자의 대량 생산보다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순 반복적인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기법의 하나인 음각 기법은 매병(추정)에 시문된 연화문과 잔 받침의 종속 문양으로 시문된 초화문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화문은 13세기 고품격 양질 청자에 대표적으로 시문되는 문양으로 위세품적 성격을 갖고 있어 내성지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기법의 퇴화문은 1점 출토되었으나 같은 시기의 강화 熙宗 碩陵(1237년)과¹¹⁾ 왕실 사찰이었던 파주 혜음원지¹²⁾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양질 청자로 상류층에서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문은 접시류와 병 등에서 일부 소량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는 이미 상감 기법이 널리 확산되어 순청자는 점차 소멸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내성지

제주 법화사

강화 회종 석릉

파주 혜음원 퇴화청자

3) 생산 시기와 생산지

12세기 요소를 갖는 압출양각과 음각 문양이 일부 있으나 이들 문양은 13세기 2/4분기의 대표적 유적인 보령 원산도에서도 확인되는 시문 기법이다.¹³⁾ 그리고 대접에서 국화문과 함께 가장 많이 확인되는 여지문은 明宗 智陵(1255년)과 완도 법화사, 제주 법화사 등에서도 확인되는 문양으로 대체로 13세기 중기 이후 상감청자에 널리 사용되었

9) 국화는 매화·난초·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날씨가 차가워진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청초하게 홀로 피는 특징으로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과 길상의 상서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국화는 노장사상에 의해 신선의 草花라 일컬어져 무병장수를 뜻하기도 한다.

10) 여지는 한 가지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부귀와 다산을 의미하거나, 열매의 형태가 원형으로 圓은 으뜸을 상징하는 元과 같아 길상문으로 공예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11)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 석릉』 2003.

1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 2006.

13) 한성욱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의 연구」 『과기고고연구』 16, 아주대학교박물관, 2010.

던 문양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단순 반복적인 상감 국화문과 여지문이 문양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압출양각 문양도 단순한 초화문과 국화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13세기 3/4분기에 본격적으로 향파두리에 청자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성지 청자의 하한은 우선 태토 비집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1350년 이전이 하한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고려 후기의 경우 1340년 모래 받침이 등장하며, 이후 1350년 태토 비집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태토 비집의 부재는 1350년 이후에는 향파두리에 청자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134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굽 너비와 유사한 매우 넓은 크기의 내저원각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내성지 출토 청자가 14세기 중기 이전에 유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¹⁴⁾



향파두리성 내성지

‘辛巳(1341년)’銘

‘正陵(1365-74년)’銘象嵌靑瓷

따라서 향파두리 내성지 출토 청자는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중기까지 유입되었으며, 규석으로 대변되는 양질품과 굵은 내화토 가루와 모래를 받쳐 구운 조질품이 기능과 용도에 맞추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지 출토 청자의 생산지는 다양한 품질의 청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아 양질 청자의 대표적 산지인 강진(탐진현)뿐만 아니라 제주에 집결한 삼별초들이 출발한 원래 근거지 주변에서 생산된 청자들이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파두리에 집결한 삼별초가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출발한 연합체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향후 과학적 분석과 상호 검토 등을 통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4. 맺음말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시대 유적은 제주의 유구한 역사에 비해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유물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의 유적과 중복되어 이들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조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을 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파두리 유적의 조사는 대몽항쟁사의 조명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제주의 역사를 정립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향파두리에서는 삼별초의 경제력과 문화상, 일상 생활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송말 원초의 고급 청자와 백자가 출토되고 있어 탐라총관부 시절의 제주를 유추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는 元 順帝가 망명처로 생각하여 장인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명

14) 한성옥 「고려 후기 청자의 생산과 유통」 『고려도자신문』 학연문화사, 2009.

은 拍拍太子 등을 제주로 안치할 정도로 원 황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¹⁵⁾ 향파두리 출토 중국 자기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즉, 향파두리는 제주 대몽항쟁의 핵심이며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이의 체계적 조사와 연구는 제주의 고려시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중국 청자



향파두리성 내성지 출토 중국 백자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여러 유적에서 계유년에 고려 장인이 만들었음을 뜻하는 ‘癸酉年高麗匠人瓦匠造’銘 기와가 귀목문 숫막새와 함께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¹⁶⁾ 귀목문 숫막새는 진도 용장성 출토 숫막새와¹⁷⁾ 장식 의장이 유사하여 1273년(癸酉年) 제주에서 패퇴한 삼별초 세력이 오키나와까지 남하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대몽항쟁 이후 삼별초의 행적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오키나와 현지 조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에

15) ① 『高麗史』 45卷, 世家 45, 恭讓王 己巳 元年(1389) 11月 壬午條・庚午 2年(1390) 閏4月 甲戌條・庚午 2年(1390) 10月 甲戌條.

② 『高麗史』 45卷, 世家 45, 恭讓王 壬申 4年(1392) 3月 乙巳條.

③ 『高麗史』 134卷, 列傳 47, 辛禡 辛酉 8年(1382) 7月條.

④ 『高麗史』 137卷, 列傳 50, 辛禡 5, 新昌 戊辰 卽位年(1388) 6月 庚戌條・12月條.

16)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琉球 王國』 2007, 134~139쪽.

17) 목포대학교박물관 『진도 용장성』 1990.

대한 종합적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향파두리에 대한 성격 규명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향파두리성은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자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축성 방법과 내부 구조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정리와 검토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향파두리성 이외의 향몽유적 출토 고려청자와의 비교 연구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겠다.